

개혁교회인가? 개척교회인가?

제506주년 종교개혁주일을 지나며 예수품안교회는 개혁교회인가 아니면 개척교회인가 하는 뜬금없는 질문을 만났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 바라보아야 할 것, 그리고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선택하는 근거를 만나게 할 것이다. 우리는 교회를 개척한 것인가? 아니면 개혁교회를 창립한 것인가?

본래 ‘개척’이란 거친 땅을 일궈 논이나 밭과 같이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든다든지, 새로운 영역·운명·진로 따위를 처음으로 열어 나간다는 의미이다. 이 개념에 따르면 교회 개척은 신앙의 불모지를 복음으로 일궈 부름 받고 선택 받은 자들을 모으는 선교 활동의 결과로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개척한 것이라기보다 개혁교회를 창립했다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것이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우려 했는지는 ‘교회창립선언문’에 잘 설명되어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목사와 장로들이 교회 운영을 주도하는 조직과 의결기구에 치우친 장로교회의 행정이다. 제직회에서 ‘문서가 필요 없다’라는 회중의 주장은 하나님을 주인인 교회를 사람이 주인이 되도록 하는 환경의 하나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으로 기억된다. 왜냐하면 문서 행정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중요한 수단이고,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의 지혜를 모으며 실명으로 책임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처럼 사람이 주인이 되면서 교회의 본질은 쇠잔해지고 형식만 남아 가는 절박한 현실을 인식하고, 교회다움의 회복을 염원하며 예수품안교회를 함께 세웠던 것이다.

대부분 개혁의 깃발을 들고 선언하는 명분은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을 만큼 반듯하고 정당하다. 그러나 그 개혁이 선언을 넘어 열매를 맺으려면 그 누가 아닌 자신이 바뀌어야 하고, 비용을 치르며 감당해야 하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신 게 아닐까? 신들린 듯 건반을 두드리며 청중의 영과 혼을 흠치듯 연주해 금상을 차지하기까지 훈련하고 또 훈련한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기쁨은 청중이 느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었고, 그는 수고한 자만이 누리는 성취감에 소름이 돋았을 것이다. 우리도 예수품안교회에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 ‘기쁨의 단’을 거두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우리에게 ‘내 명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다’고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우리는 개혁교회 창립을 넘어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 개척의 동역자입니다.